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 청구건수 18만7천개로 크게 감소
- Bloomberg: 애틀랜타 연방은행총재 Boltic, “금리 인하 올해 3분기에 시작” 강조

[금융]

- CNBC: 10년물 국채 수익률 4.1%에서 머물러
- CNN Business: 바이든 행정부, 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 연간 35억불 절감 방안 제안
- Bloomberg: ECB, “유럽 금리 인하 여름에 인하 가능성 높다”

[미국 대선]

- JP 모건: 올해 미 대선의 예상 관점

[뉴욕]

- Bloomberg: 뉴저지 주지사, “뉴욕시 혼잡세은 헌법 위배”

[주택]

- USNews: 12월 미 단독 주택 신축 크게 감소

[반도체]

- WSJ: TSMC, “2024년 수익 20% 이상 상승할 것”
- WSJ: TSMC, 4분기 순이익 19% 감소 ...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
- Bloomberg: 일본 반도체 장비 판매가 연간 27% 상승... AI덕분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영국은행, “양자 컴퓨터, 금융시장에 혁신 이끌 것”
- WSJ: 현대·기아차, 올해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사로 부상
- Bloomberg: 혼다, 올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10% 증가 전망
- Bloomberg: 메타, 인공지능 활용해 광고 수익률 32% 달성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Plunge to 187,000, Lowest Since September 2022

미 신규 실업 청구건수 18만7천개로 크게 감소

-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지난 2022년 9월 이래 가장 낮게 떨어졌다. 올해를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.
- 1월 13일 끝나는 주의 신규 청구 건수가 1만6천건 줄어든 18만7천건이라고 오늘 목요일 연방노동부는 밝혔다. 특히 뉴욕주가 크게 감소했다.
- 전체 실업 청구 건수는 3주째 감소한 1백81만건으로 나타났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Fed's Bostic Reiterates View Rate Cuts to Start in Third Quarter

애틀란타 연방은행총재 Boltic, “금리 인하 올해 3분기에 시작” 강조

-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인Raphael Bostic는 금리가 연준 목표치인 2%로 향하고 있는지 보다 충분한 증거를 보고 싶다며 “연준 관리들이 올해 3분기 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- 그는 “나는 3분기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현재로서는 전망하고 있다”며 관련 지표들을 앞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Bloomberg 기사

[금융]

CNBC: 10-year Treasury yield hovers near 4.10% on more strong jobs data

10년물 국채 수익률 4.1%에서 머물러

- 최근 일자리 보고서가 강세로 나타나면서 국채 수익률이 4.1% 대에 머물렀다.
- 어제 수요일 4.12%를 기록한 후에 2 베이스 포인트 증가한 4.123%에 머물러 있다.
-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 베이스포인트 늘어난 4.369%로 거래됐다.

CNBC 기사

CNN Business: Biden administration proposes rule that could save consumers \$3.5 billion a year in bank fees

바이든 행정부, 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 연간 35억불 절감 방안 제안

-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는 대형은행과 신용조합(Credit Unions)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지나친 초과 인출 수수료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 이같은 지나친 수수료는 35억불로 추정되고 있다.
- 이 방안은 자산이 최소 1백억 달러 이상의 은행과 신용조합에 적용된다. 이들 은행들은 미국의 소비자 저축 계좌를 크게 점유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Bloomberg: Lagarde Says It's Likely ECB Will Cut Rates in Summer ECB, “유럽 금리 인하 여름에 인하 가능성 높다”

-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중앙은행이 여름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밝혔다.
- 그는 이같은 금리 인하 시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“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일부 경제 지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”고 밝혔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대선]

JP 모건: 2024 US election kickoff 올해 미 대선의 예상 관점

- 미국인들 올해 대선 공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. PRRI 최근 설문 조사 결과, 미국인 응답자의 75%는 “미국 민주주의 미래는 올해 대선의 리스크”를 꼽았다.
- 올해 대선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. 2018년, 2020년, 2022년 선거는 각각 높은 투표율일 보였다.
-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, 바이든의 경합주에서의 여론 조사 결과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시사된다.
- 바이든과 트럼프가 낮은 호감도와 지지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또는 제 3의 당의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커지고 있다.
- 유권자들은 미국 경제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지만, 실제 경제의 상황과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.
- 낙태권리와 이민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다.
- Gen Z 세대가 올해 투표 인구중 거의 20%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투표 파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인공지능의 발전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고, 소셜 미디어는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.
- 미 대선이 외교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올해 대선은 외교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.

JP 모건 기사

[뉴욕]

Bloomberg: NY Congestion Pricing Plan Violates US Constitution, NJ Governor Says

뉴저지 주지사, “뉴욕시 혼잡세은 헌법 위배”

- 뉴저지 Phil Murphy 주지사는 맨해는 중심 비즈니스 지역으로 차가 진입할 경우 혼잡세를 부과하라는 뉴욕의 방안이 맨해튼으로 운전하는 뉴저지주 주민을 차별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.
- 뉴저지주는 이미 7월에 연방교통국을 상대로 “보다 장기적인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”며 교통국을 상대로 소송했으며 뉴욕 메트로포리탄 교통공사도 제소 대사에 추가했다.
- 현재 헌법은 각 주정부가 주 사이의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는 법의 시행을 금지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주택]

USNews: US Single-Family Housing Starts Plunge in December 12월 미 단독 주택 신축 크게 감소

- 미 단독 주택 건설은 연이은 상승세 이후 12월에 급감했다.
-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신규주택 착공은 12월에 8.6% 감소한 계절별 조정 연율로 1백2만7천재로 나타났다.
- 지난달 우기 날씨도 신축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. 12월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단독 주택 신축이 15.8% 증가했다. 주로 신축이 줄어는 지역은 동북부, 중서부, 인구기 집중된 남부지역이며 반대로 서부는 늘어났다.

Bloomberg 기사

[반도체]

Bloomberg: Japanese Chip Gear Sales Seen Climbing 27% in Fiscal 2024 on AI 일본 반도체 장비 판매가 연간 27% 상승... AI덕분

- 일본 반도체 장비 판매가 4월에 시작하는 회계 연도에 27% 늘어난 2백70억달러를 기록했다.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지출 수요에 힘입었다고 일본 반도체 장비 협회는 밝혔다.
- 특히 9월부터 3월까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의 지출이 상당히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. 2026년 3월까지 10%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TSMC Thinks 2024 Will Repower Chip Sales

TSMC, “2024년 수익 20% 이상 상승할 것”

- TSMC가 2024년의 수익이 작년 대비 20% 이상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.
-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.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IDC에 따르면, 2023년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.5% 증가했다.
-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 급증 또한 반도체 수요를 늘리고 있다.
- TSMC의 3나노미터 반도체의 매출은 지난 분기 이 기업 매출의 15%를 차지했으며, 올해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**WSJ: TSMC's Profit Drops on Sluggish Chip Demand, Weaker Margins
TSMC, 4분기 순이익 19% 감소 ...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**

- TSMC의 4분기 순이익이 반도체 수요가 줄고, 이윤이 악화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.
- 오늘 목요일, 이 기업은 4분기 순이익이 작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년 동기대비 19%가 감소했다고 밝혔다.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대비 10.4% 포인트 떨어졌다.
- 이 기업은 올해 첫 분기 매출은 4분기 매출인 1백96억 달러에서 1백80억 내지 1백88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 영업 이익률은 40%에서 42%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**Bloomberg: Quantum Computers Could Transform Financial Markets,
Says BOE
영국은행, “양자 컴퓨터, 금융시장에 혁신 이끌 것”**

- 영국은행에 따르면, 양자컴퓨터가 금융시장에 주요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.
- 양자 컴퓨터가 양자 시장을 만들어, 거래 방식을 변화시키고, 금융시장이 작동하는데 높은 수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.
-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빠른 처리 능력을 갖춘 새로운 기술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Hyundai, Kia Emerge as Tesla's Biggest U.S. Rivals on EVs 현대·기아차, 올해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사로 부상

-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큰 경쟁사로 부상하고 있다.
- 전문가들은 두 기업이 올해 새로운 전기차 모델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, 앞으로 테슬라 외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거나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- 오늘날, 현대와 기아차는 테슬라를 포함해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 더 많은 전기차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, 전기차 세금 규정을 활용해, 매력적인 리스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.
-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식고 있지만, 두 기업은 전기차 확장 계획을 이어 나가고 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Honda Sees 2024 US Sales Climbing 10% With Boost From Hybrids 혼다, 올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10% 증가 전망

- 혼다가 올해 미국 내에서만 1백40만대의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.
- 혼다 미국 자회사에서 최고 영업 책임자를 맡고 있는 마두 디알로 (Mamadou Diallo)는 올해 자동차 판매량을 10%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.
- 작년 혼다의 판매량은 33% 급증했으며, 디알로는 올해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Meta Says its AI Tools Boost Ad Campaigns' Returns by 32% 메타, 인공지능 활용해 광고 수익률 32% 달성

- 글로벌 비즈니스 그룹의 책임자인 Nicola Mendelsohn는 메타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광고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평균 32%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말했다.
- 또한, 그는 AI를 사용하면 광고비용의 17%를 절약할 수 있으며, 복잡했던 광고 기획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**美연준 "미국 전역에서 노동시장 냉각 신호 나타나고 있어"****베이지북 "기업, 임금상승률 둔화 기대"...인플레 둔화 '청신호'**

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던 노동시장 과열이 미 전역에서 냉각되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분석했다.

연준은 17일(현지시간) 공개한 1월 경기동향 보고서(베이지북)에서 "구직 대기자 증가, 이직률 감소, 기업의 선별적 채용 확대, 임금상승 압력 완화 등 노동시장의 냉각을 시사하는 신호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1개 또는 복수로 나타났다"고 진단했다.

연준은 이어 "많은 지역의 기업들이 내년에도 임금상승 압력이 둔화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다"라고 말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Unsubscribe_office@kocham.org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